

2014년 5월 12일

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. 어제부터 부쩍 더워진 날씨에 오늘 처음 에어컨을 틀었다. 방학을 해서 친구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다. 방학을 시작으로 작년처럼 페이스 북 비활성화를 했다. 오늘 까지만 놀고 이제 정신차리고 포트폴리오와 다음 학기 스튜디오 준비를 해야지. 사실 아직 마무리 해야 할 일이 더 남았다. 사진 수업 포트폴리오랑 포토에세이도 섭밀해야 하는데... 오늘이 5월 12일 인 것을 방금 일기를 쓰려다 기억 났다. 저번 주부터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 하려고 맘 먹었었는데 말이다. 오늘 뭐했더라... 사실 일찍 일어나서 양양이랑 요은이 좀 보려 했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다들 바쁘데 오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더 잤다. 낮에 잠깐 일리한테 이불 받으러 갔다 오고 저녁으로 라면 끓여 먹었다. 한국 돌아 가기 전까진 이제 라면 안 먹어야겠다. 오늘 윤학이랑 오랜만에 카톡하고 근황토크했다. 약속은 지키는 친구. 나도 약속은 지켜야겠다. 나 자신과 한 약속은 특히나! 한국 가기 전 까지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해 져야겠다.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조금 겁이 난다. 목요일에 월급 받으면 바로 다 카드 빚으로 나갈 것 같다. 이번 여름 하우스링 피는 내 돈으로 내려고 했는데, 아무래도 엄마한테 또 손을 벌리게 될 것 같다. 엄마 미안. 여름학기 시작 전까지 아직 3주 남았는데 그 동안 라이노를 할 수 있을 까...? 이번 주는 내내 비도 오고 습할 것 같다. 내일은 이사를 끝내고 어서 새 방에 적응하고 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시작하고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고 향초도 켜놓고 그러고 싶다. 와 진짜 돈 없다. 공모전 안 하길 잘 한 것 같다. 학교는 정말 조용하다.